

보도자료

시민 성금 15억 원 돌파, 제105차 대출 집행

- 2015년 2월 25일 문을 연 장발장은행.
- **제105차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 위험에 놓인 **현대판 장발장 9명에게 2,37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 장발장은행의 대출은 신용 조회 없이, 무이자, 무담보, 무신용으로 진행.
- 지금까지 105차에 걸쳐 **1,211명의 시민께 총2,113,567,000원을 대출** 중.
- 장발장은행의 재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져. 2023년 6월 29일 (오후 19시 기준) **14,302명의 개인, 단체, 교회 등에서 모두 1,500,353,290원(이자 포함)의 성금** 이어져.

1.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장발장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에 대출자금으로 보내주신 시민 성금이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모여지는 시민들의 성금은 단 한 푼도 장발장은행의 운영경비나 심사비용으로 지출됨이 없이, 전액을 오직 현대판 장발장들을 위한 대출자금으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2. 이번 105차 대출 심사는 2023년 6월 29일(목)에 진행했습니다. 대출 심사 결과, 김00(경기 고양, 00년생)에게 300만 원, 방00(경북 칠곡, 96년생)에게 270만 원, 송00(경기 여주, 86년생)에게 200만 원, 엄00(제주, 82년생)에게 300만 원, 유00(전남 순천, 83년생)에게 300만 원, 원00(경북 경산, 91년생)에게 300만 원, 이00(경기 성남, 82년생)에게 300만 원, 조00(서울 중랑, 59년생)에게 100만 원, 한00(인천 동구, 00년생)에게 300만 원 등 모두 9명의 현대판 장발장에게 2,370만원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3. 이날 심사에는 홍세화 은행장과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갑룡(전 경찰청장), 김학성(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4명의 대출심사위원이 참석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다음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제106차)는 2023년 7월 26일(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장발장은행은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 개혁으로 은행 문을 닫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